

# 자임추모공원, 추모의 길 다시 열려

## 전주시, 정상 개방 계기로 유족 추모권 보장키로

소유권 분쟁으로 장기간 폐쇄됐던 전주시 자임추모공원이 정상 개방되면서 유족들의 오랜 고통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자임추모공원이 정상 개방되면서 안전된 유골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족들이 자유롭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자임추모공원은 지난 2024년 6월 촉발된 재단법인 자임과 유한회사 영취산 간의 소유권·운영권 갈등으로 인

해 지난 1월부터는 봉안당 운영이 전면 중단되면서 유족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이후 유족들은 상여 행진과 집회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해 왔다.

이에 시는 피해유가족협의회 및 관련 업체간 협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련 회 등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임추모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왔다.

시는 이번 개방을 계기로 유골함 관

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를 통해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추모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울러 시는 시설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장사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개방으로 유족들이 안심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가족 권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자임추모공원

## 누구나 누리는 문화공간 조성

### 전주시 평화도서관, 장애인 특화도서관 자리매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한 전주시 평화도서관이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되새기며 장애인의 권리와 문화적 참여를 확대하는 뜻깊은 날이다.

평화도서관은 장애인 특화도서관으로서 △초급 수어교실 △찾아가는 수어교실 △장애인 인식개선 초청 강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손으로 전하는 소통' 초급 수어교실은 일반 시민과 청각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운영되며, 전문 수어통역사가 강사로 참여해 수어의 구성요소와 기본 어휘를 교육한다.

또한 상·하반기 총 2회 운영되는 '다름을 이해하는 손길' 찾아가는 수어 교실은 전주지역 특수교육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초 수어를 배우는 체험형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름을 존중하는 인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울러 올 하반기에는 김진영 영화감독을 초청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CODA: Children of Deaf Adults)인 김 감독은 자신의 자전적 영화 '나는보리'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만전

### 전주시, 전담 TF 구성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전주시가 사전 준비 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1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사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고, 일선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속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비 여건을 제공하고, 역대 소비순환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동시에 도모하는 민생에 힘이 되는 지원대책이다.

시는 신속한 준비와 탄탄한 집행체계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

가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2주간 먼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50만 원씩 차등 지급된다.

이어 2차 피해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정리를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기준 상위 30% 제외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기 미신청자의 경우 2차 지급 시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중동 전쟁 여파 회복에 신속히 사용되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앞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전주시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전주시사랑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초기 불림에 따른 민원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차 및 2차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



운동목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평화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부제가 적용되며,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이에 앞서 시는 원활한 피해지원금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사업 총괄 △현장 지원 △홍보·접산 지원의 3개반의 전담 대응반(TF)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 왔다. 동시예, 오프라인 선불카드 지급을 위한 35개 동 주민센터에 기간제 인력과 전산반비 구축 등을 보장하고, 선불카드

확보 및 대상자의 정확한 추출 등을 거쳐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운동목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도 이날 직접 평화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콜센터(국번 없이 110, (27일부터)1670-2626), 전주시 전용 콜센터(063-281-8733)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구축 집중

전주시가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임대료 지원 △주택 개보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311만 7474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계약금은 본인 부담한다. 지원 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동시에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과 긴급복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맞춤형 주거 상담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 15호 운영 △주거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냉·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연탄 사용 가구를 위한 '연탄쿠폰'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냉·난방시설 설치·교체와 단열 창호 시공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추진

전주시는 인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중 전주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한 28개 학교 청소년 등 1300여 명을 대상

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 중이다.

첫 번째 교육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전주인봉초등학교와 용덕초등학교 학생 13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 소속 강사가 초청돼 '인구변화가 주는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



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해 △인

구 변화로 인한 미래사회 예측 및 향후 진로 선택과의 관계 △미래사회 대응 전략 설계 △가족의 소중함과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이다.

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교육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청년과 성인 등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